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 '총집합'

8월 30·31일 속리산서 대규모 워크숍 / 치협 사상 최초...200~250여명 규모 예상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치과계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워크숍이 8월말 중에 열린다.

또 그동안 치협에서만 심의 됐던 치과의료 광고가 지부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수구 협회장과 김양락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2일 대전에서 열린 제1차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 협회장은 "오는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속리산 모처에서 지부 회장단 및 치무, 법제, 보험 등 각 지부 주요 이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워크숍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자리에서는 치협의 중장기 발전 계획은 물론 당면 과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했다. 치협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워크숍 첫날에는 각 분임위 별로 토론했던 방안을 찾고 다음날에는 전체 토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진행할 생각"이라면서 "이번 워크숍에서 치과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자"고 강조했다.

아직 워크숍 참여인원과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략 200~250명 정도의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대규모의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하는 워크숍은 치협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치과계가 하나로 더욱 단합하는 계기가 되고 생생한 치과계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협회장은 또 치과전문외제와 관련, "전문외제는 소수로 간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AGD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한다면 4~5년 후에는 해결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치과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면서 "의협 등에서도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찾아 건강보험 비중을 늘리려 한다. 치협도 금연진료가 보험화 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그러나 치과사들이 금연에 대해 관심과 지식이 모자란 만큼,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지부는 금연진료나 교육 등을 보수교육 연제로 추진하고 치협도 각 임플랜트 강연 등에 금연 교육을 10분 정도 할애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강조했다. 치과의료 광고 심의가 사전에 지부에서 일단 심의를 거쳐 치협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지부장 협의회에 참석한 김양락 대구지부 회장(치협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위원장)은 "치과의료 광고의 심의 기한은 한 달이다. 그러나 과거 많은 지부들이 지부 자체 내규로 광고 심의를 한 바 있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를 살려 주기 위해 각 지부에 일주일의 시간을 부여해 치협에 올린 광고를 각 지부에서 광고를 낸 지부 광고주와 협의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은 "지부 내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부와 광고주 간 내규에 벗어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회의 광고 심의 규정대로 광고 내용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치협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 회장의 발언은 그동안 일부 지부에서 요구한 광고심의 지부 참여 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보조인력 수급 TF팀 발족

위원장에 기대석 전 대전지부장 선임 / 간사는 박영섭 치무

보조인력수급 TF팀(이하 TF팀)이 치협 산하 조직으로 공식 발족됐다.

TF팀은 지난 6월 10일 비공식 임시 회의를 열고 기대석 전임 대전지부 회장을 위원장에, 박영섭 치협 치무이사를 간사에 선임하는 등 TF팀 위원 구성을 일부 완료했다.

특히 이번 TF팀 발족은 이수구 집행부 출범당시 선거공약을 통해 약속했던 개원가의 고질적인 보조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칼을 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인 만큼 개원가가 거는 기대가 크다.

그동안 보조인력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치협 치무위원회가 주축이 돼 치위생과 정원 증원, 보조인력 업무영역 확대 등 다각도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연구 및 전담인력 미비, 유관단체와의 의견 조율 등의 문제로 원활한 보조인력 수급의 해법을 찾는데 매년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치협 집행부 내부 및 외부에서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담 팀을 구성해 인력수급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날 TF팀 비공식 회의에서는 위원 구성 및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TF팀은 오는 17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공식인준을 받은 후 다음달 12일 첫 공식회의를 열고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법률안 반대 입장 전달

이수구 협회장, 유관단체장 정책간담회 참석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6월 17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주최한 유관단체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등의 정부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이 협회장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전문적인 구강위생 요양 항목을 적극 개발하고 우선 장기요양 서비스에 치과질환을 추가할 것을 강조했다.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는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앞두고 치협을 비롯한 23개의 유관단체장들에게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최근의 보건의료정책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 협회장은 지난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 의무화와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에 반대한다는 치협의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협회장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노인들에게 효율

적인 구강위생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강위생요양 항목이 개발돼야 한다”며 “항목개발과 함께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장은 또 구강보건용품 등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보상하고 복지용구에 전동칫솔이 추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협회장은 치협이 전국 권역별로 장애인치과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이 장관은 “주요기관 단체장을 모시고 최근의 현안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의협, 구강보건협회, 사회복지관협의회, 금연운동협의회, 아동단체협의회, 정신요양협의회, 청소년지도자연합회 등 23개 단체장과 유영학 기획조정실장,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 진영곤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수가협상단 구성안 등 현안 논의

치협 정기이사회

치협은 이수구 협회장 및 부회장, 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월 17일 제2회 정기이사회를 치협 중회의실에서 열고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치과계 각종 현안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사이버 여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인터넷 매체 및 각종 미디어 상에서 잘못된 치과정보를 바로 잡고 네티즌들에게 올바른 치과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사이버 대응팀을 구성, 운영하는 안이 확정 보고돼 관심을 모았다.

또 2009년도 치과병·의원 적용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계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단을 구성하는 안이 승인됐다.

협상단 대표로는 우중윤 부회장이 선임됐으며 마경화 상근보험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아울러 지부 임원 선출시 회장 1인만을 단독 선출, 부회장 및 이사의 경우 별도로 선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지부 안 등 지부 및 분과학회 회칙개정안이 일부 승인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공직회원의 자격범위 규정에 따라 공직회에서 제외된 국립암센터와 서울특별시립보

라매병원 등이 제기한 이의 신청 건은 공직지부의 의견 수렴 후 다음 이사회에서 재검토기로 했다.

국립암센터와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은 각각 서울대병원의 모자병원과 위탁운영병원 등을 근거로 공직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밖에 치협 산하 17개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에 대한 위원구성이 완료돼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추가 및 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이사회에서 확정기로 했다.

또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일부 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같은 자구 수정 사안 등을 반영한 건강보험연구위원회규정, 상대가치개정위원회운영규정, 요양급여비용청구지원팀운영에 관한규정 개정의 건이 일괄 통과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방문간호지시서 작성안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에 관해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오는 8월로 예정된 그랜드워크숍과 관련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행사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